

# ‘자치단체 통합법’ 4월국회 통과되나

목포권(목포·무안·신안)과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이 주민투표로 통합될 수 있을까?

행정구역 통합 추진의 동력이 될 자치단체 간 통합지원 법률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지난 2월 초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자치단체나 주민 등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지역 유권자 5%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 여부는 양 지역 각각 투표율 3분의 1 이상, 찬성률

주민투표 찬성률 50% 이상이면 지역통합 가능

제정 땀 목포권·광양만권 등 통합 논의 본격화

50% 이상일 때 가능한 현행 ‘주민투표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 법안은 행정구역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 투표 등 통합 추진에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통합에 따른 행정·재정적 절감 비용을 통합 자치단체에 지원하거나 하면 양 지역 특별교부세 지급액을 통합 후에도 예초 대로 유지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약속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통합 당해 시기의 지방의회 의원 정수도 현행대로 유지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목포·무안지역, 광양만권, 청원·정주 등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법안의 통과 전망은 밝은 편이다. 정부에서도 자치단체 통합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행안위 상정→법안소위→행안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6~10일 대정부질

문, 13~16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7일 본회의 등의 일정이 잡혀 있어 20~28일에나 상임위가 열릴 것으로 보여 4월 국회 처리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 상정 자체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정부의 법안과 병합시킬 수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법률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이 필요해 국회제출이 빨라야 다음달 중순께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같은 법률안이 무조건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 행정법안이 산적해 있고 정부가 장기적으로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지경기자 jkpark@



폭탄에 구멍난 레닌 동상 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핀란드역 밖에서 폭발물이 터져 레닌 동상에 80~100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러시아 경찰 감식반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日, MD시스템 실전 모드로

### 北 로켓 발사 대비 신형 지상 레이더 FPS-5 배치

북한의 로켓 발사 준비에 따라 일본 방위성이 금주 들어 항공자위대의 지상 레이더 ‘FPS-5’를 실전 모드로 전환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FPS-5는 탐지, 추적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레이더로, 북한 전역 상공을 감시할 수 있다. 이 레이더는 이미 배치된 이지스함,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PAC3)와 함께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한 요격 준비에 활용된다.

FPS-5는 시험용 레이더로서 2003년에 완성돼 지바현에 있는 방위성 시설에서 성능 및 운용 방식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 왔다.

이 레이더는 2006년에 해체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존속시켰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2011년 사이에 전국 4곳에 정식 배치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해 31일 가고시마현 시모키시키섬에 이를 최초로 배치했다.

FPS-5는 이지스함에 탑재된 고기능 ‘SPY1레이더’와 함께 탄도미사일에 대처하는 레이더망의 핵심이다. 자위대는 이 레이더를 금주부터 ‘탄도미사일 추적’ 모드로 전환했다.

방위성의 운용 연구 결과 FPS-5는 여러 가지 고속 비행체 추적에 성공한 만큼 미사



일이 일본 상공으로 날아오면 반드시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레이더와 함께 전국 7곳에 배치돼 있는 FPS-3 레이더도 탐지, 추적에 동원된다. 이와 함께 주일미군이 아오모리현에 배치한 ‘X밴드 레이더’도 투입된다. 이 레이더는 FPS-5 보다도 탐지 거리가 길어서 원거리 감시 능력이 뛰어나다. /연합뉴스

## “올 무역흑자 150억~200억弗 예상”

### 李대통령, G20 회의서 ‘금융감독 기능’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1일(한국시간) “이번 G20 금융정상회의에서는 재정지출 확대, 부실자산 처리, 신용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유동성 지원 등에 이어 신용평가사와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관리 등 금융감독 기능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G20 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최대 경제전문 채널 CNBC의 마리아 바티모모 앵커와 가진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를 살리려고 모든

나라들이 공조하고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신용평가사 및 조세회피지역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실채권 처리 문제와 관련,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제 금융시장의 경색을 해소할 수 없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실물경제의 회복도 어렵다”면서 “한국은 외환위기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인수토록 하고, 그 부담은 금융기관 경영자와

종사자, 주주 할 것 없이 공유토록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했는데 이는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개선할 성공적인 사례”라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전망에 언급, “한국수출은 지난 1월부터 2월, 3월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아마 올 연말에는 150억~200억달러 가까이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향후 역점을 돌 분야에 대해선 “앞으로 5~10년은 녹색기술에 집중해 다시 한번 원천기술로 세계 경제가 한 단계 올라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녹색산업은 한국의 중요한 신성장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www.pms.co.kr www.kimyoungh.co.kr

# PMS.김영면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227-6088

2010학년도 편입대비

- 기초부터 상위단계
- 편입영어 교육 및 기출문제
- 영어, 국어, 수리, 인성교육
- 편입시험대비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
- 편입시험 합격률 90% 이상

대학편입 대개강: 4월 1일

### 건강 행만 내

건강을 위한 다양한 상품 소개

### 남성 강한 기

자신감을 잃은 30~40대 남성들 위한 남성 기력충진제 '남성 기력충진제' (엑스텐)

- 생각장애의 원인은 남성 기력충진제
- 강한 힘! 남자는 자신감!
- 편입시험대비로 완성하고 싶어!

가격: 3만원 (배송비 별도)

문의처: TEL: 060-1200-9999 FAX: 060-6000-8180

### QUIZ

퀴즈를 통한 학습 효과